NEWS RELEASE

SBI Business Solutions

각위

2022년 1월 26일
SBI비즈니스솔루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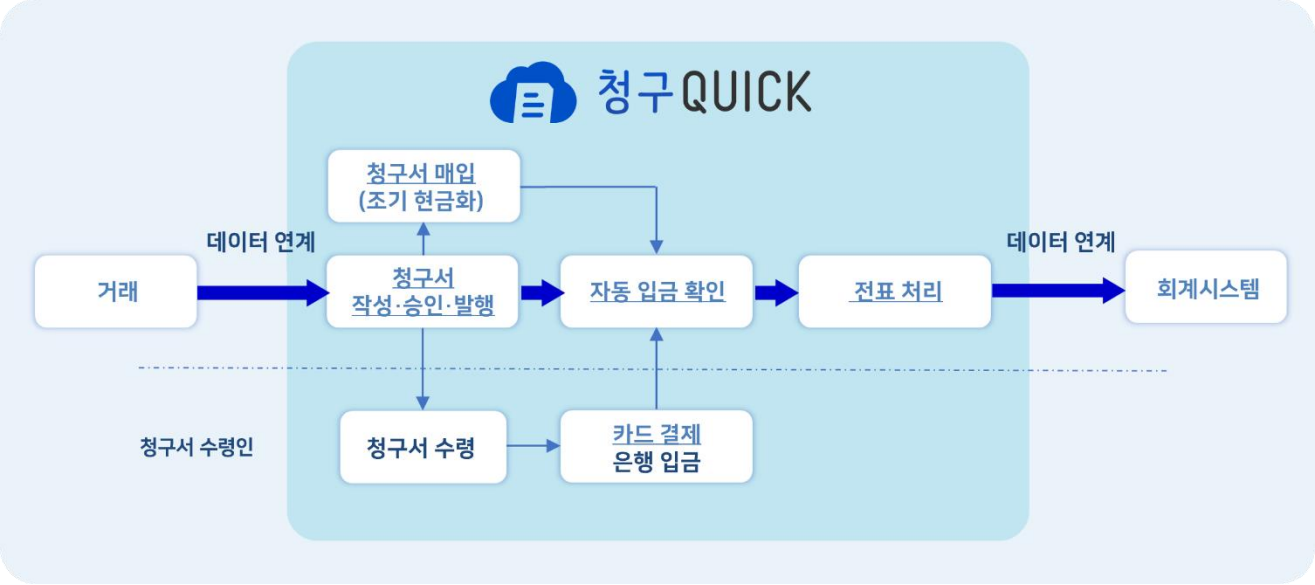
자동입금확인으로 청구서 발행업무의 90%(연간 1,944시간*1) 노동력 절감이 가능

SBI비즈니스솔루션즈가
청구서발행시스템 「청구QUICK」을 3월 1일부터 제공 개시

~기본사용료 0엔부터 도입 가능,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클라우드형 경비정산 시스템 「경비Bank II」를 비롯한 백오피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이하 「당사」)는 경리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시킬 클라우드형 청구서발행시스템 「청구QUICK」의 제공을 2022년 3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청구QUICK」의 무료등록 사전접수가 시작됩니다.

<「청구QUICK」이 대응하는 청구서 관리업무 운용 이미지>



*1 월 300 매 청구서 발행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경우.

■ 경리담당자의 시선으로 업무 과중과 심리적 부담의 경감 실현

코로나로 원격근무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2022년 1월에는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의 시행*2, 2023년 10월에는 인보이스 제도*3의 개시 등 경리를 둘러싼 환경에도 전자화를 수반하는 법 개정을 중심으로 전례 없이 큰 변혁의 물결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12월 「2022년도 세제개정 대강령」에서는 전자거래의 전자보존 의무화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발표되어, 많은 기업이 경리 서류의 전자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서의 백오피스 업무, 특히

경리관련 IT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강하여 일례로 입금확인작업을 은행에서 기장 후 1건씩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등 아날로그 업무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월말 월초 경리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지속적인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는 실무자인 '경리담당자의 시선'으로, 업무 및 심리적인 면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구QUICK」을 개발하였습니다. 「청구QUICK」은 청구서의 작성과 발행부터 자동입금확인 및 전표처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업무프로세스의 단축과 효율화는 물론,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경리담당자의 다양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작업의 자동화는 부정이나 담당자의 실수 방지라는 과제 해결로도 이어져 경영자 시점에서도 거버넌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사용료 0엔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그 동안의 백오피스 시스템 투자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에서도 손쉽게 도입이 가능하여, 경리업무의 DX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금 확인 작업을 시스템에 맡겨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담당자는 조금 더 사업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경영 개선 제안이나 사내 캐시플로우을 재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경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그동안 전자보존 도입의 병목이었던 '세무서장 사전승인제도'가 철폐되고 타임스탬프 요건도 대폭 완화되는 한편 전자거래의 전자보존이 의무화돼 종이보존이 세무상 허용되지 않는다.

*3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보존방식) 제도: 2023년 10월부터 개시될 예정인 소비세에 관한 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인보이스(적격청구서)등의 보존이 요건이 되었다.

■ 「청구QUICK」으로 청구서의 작성, 발행부터 자동입금확인, 전표처리까지 원스톱 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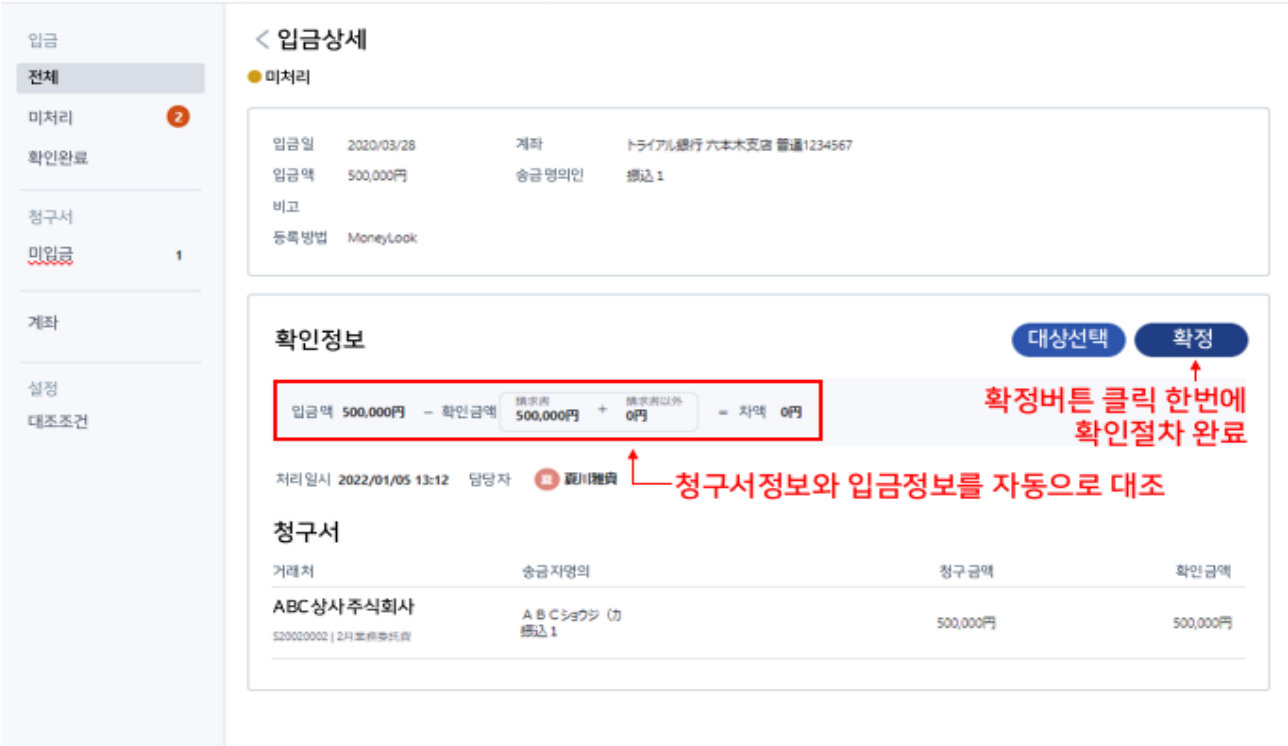
「청구QUICK」은 청구서의 작성, 승인, 발행에서 입금확인과 그 후의 경리처리까지 모두 Web상에서 끝낼 수 있는 클라우드형 청구서발행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청구서발행시스템을 도입해도 시스템에서 작성한 청구서 외의 입금확인은 수작업이나 다른 툴을 사용해야 했으나, 한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금확인을 포함한 청구서 발행업무에 드는 노동력 및 시간을 약 90% 절감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발행 매수가 한달에 300매 정도인 기업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 연간 약 1,944시간, 한달에 50매 정도의 기업이라면 연간 약 324시간*4의 업무 효율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4 당사 시산에 근거함.

①전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입금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90% 삭감

현재 시중에는 마스터 등록을 하고 난 후에 별도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청구QUICK」은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마스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청구서 작성이나 발송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말 월초에 집중되기 쉬운 청구서 관련 업무의 분산을 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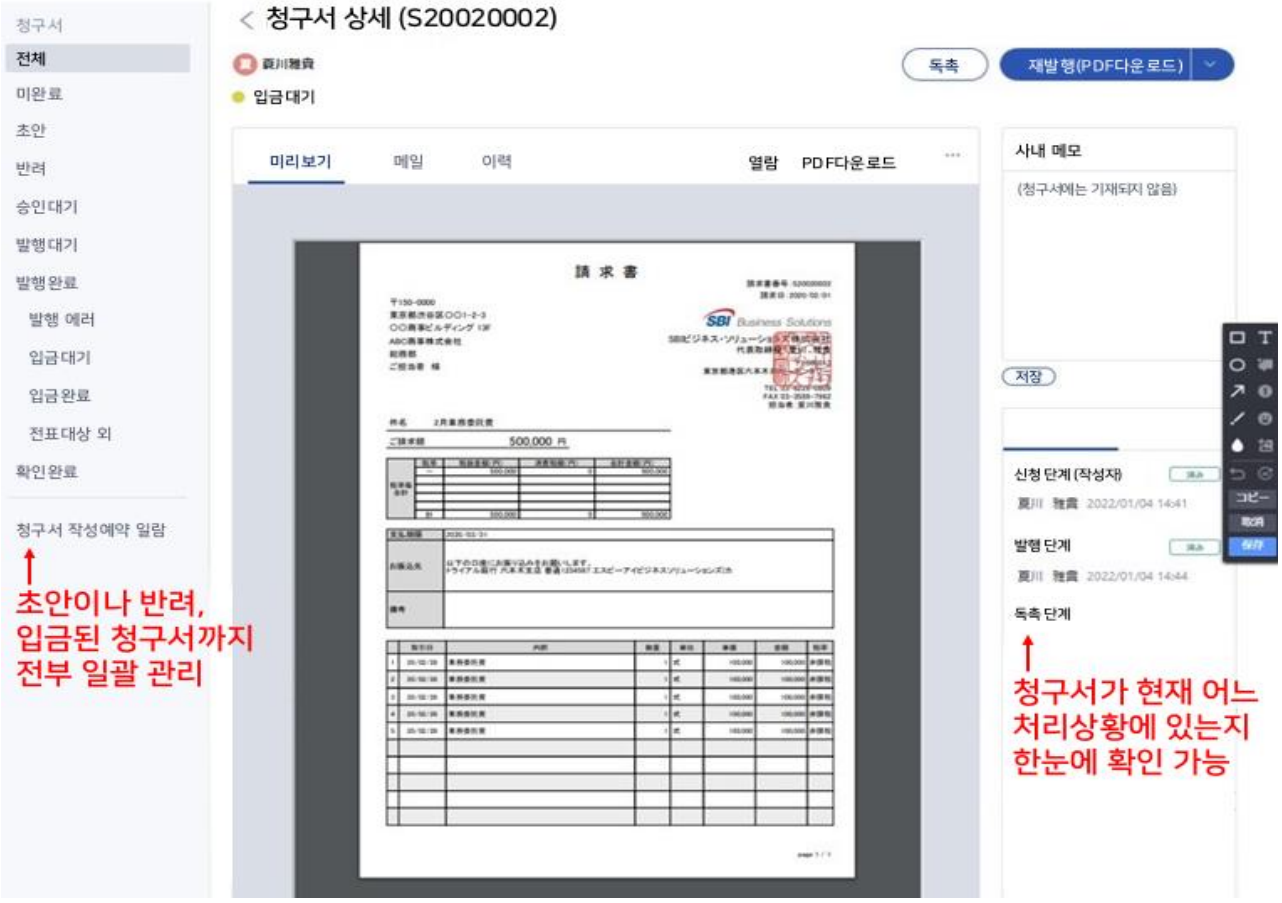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전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조 작업이 클릭 한 번으로 완료됩니다. 「청구QUICK」에서 작성된 청구서 이외의 입금내역 확인 또한 가능하여 입금확인 절차에 드는 노동력과 업무시간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첨부화면은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청구QUICK은 일본어 대응 소프트웨어입니다.

②초심자도 조작 가능한 알기 쉬운 화면설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없는 분도 간단하게 취급과 조작이 가능한 편의성을 추구했습니다. 사용법의 무료 세미나나 전화 서포트와 같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리업무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첨부화면은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청구 QUICK 은 일본어 대응 소프트웨어입니다.

③개정 전자장부보존법과 인보이스 제도에도 대응

「청구QUICK」은 발행한 청구서 데이터의 보존에 대하여 2022년 1월 시행된 전자장부보존법의 '전자거래'법 요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개시되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비한 소비세계산 또한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동화에 의한 효율화나 경리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법 개정 요건에도 유연하게 요구사항에 맞춘 대응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표준 사양으로 탑재하여 초기/월정액 무료 및 업계 최저가 수준의 결제수수료

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플랜으로서 원클릭 청구서매입 서비스*5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자금화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의 캐쉬플로우의 최적화에도 공헌합니다.

*5 「청구서 매입 서비스」: 간단하고 편리한 회수 서포트로 자금융통의 고민을 해소. 2022 년 여름 서비스 제공 개시 예정.

＜「청구QUICK」운용 이미지 ＞

■ 월정액 무료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청구QUICK」은 이용인원 5명, 청구서발행 매수 50매까지라면 '월정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발행매수가 많은 기업도 요금 설정이 저렴하여 안심하고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QUICK」은 등록 후 최초 3개월 동안 이용인원이나 발행 청구서 매수에 관계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원수 무제한으로 청구서발행부터 인터넷뱅킹의 명세 취득, 자동입금확인 등 편리한 기능을 체험하실 수 있으므로 운용 이미지 확인이나 사내에서의 정보 공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보존의 의무화나 인보이스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청구서 전자화에 관심이 있지만 비용이나 운용면에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경리업무 디지털화를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 「청구QUICK」요금표 >

	청구QUICK 무료 사용	타사대비 압도적인 저렴함 !
무료 계정 (청구서 열람만 가능)	인원 수 제한없이 무료	
유료 계정 (청구서 작성, 승인, 발행)	5인까지 월이용료 무료	6인 이상 월 500엔/1인
청구서 발행매수	월 50매까지 월이용료 무료	월 51회 이상 사용시 30엔/1매
청구서 우편대행	200엔 / 1건	
온라인 입출금 명세서 취득※	월 30회까지 무료	월 31회 이상 사용시 300엔/30회

※ 1은행 1계좌의 실행횟수를 1회로 카운트
※ 계속이용 신청 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신용카드 청구, 청구서 매입에 대해서는 이용 시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릴리스의 기재내용은 발표시점 기준입니다.
그 후, 향후 제품 개량 등에 따라 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활동의 중축인 경리담당자를 위하여 백오피스 업무의 DX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진심으로 대응하여 백오피스 차원에서 경영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력이나 자금과 같은 리소스가 부족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갈 것입니다.

■ 당사 개요

회사명 :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설립 : 1989년 9월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자본금 : 3억 5천만엔 (자본준비금 등 포함)
사업내용 :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URL : https: //www.sbi-bs.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